

2013 경기도미술관 현대미술기획전

2013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Special Exhibition

gma 경기도 미술관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친 절 한 현 대 미 술 II

추상은 살아있다

Closer to Contemporary Art II
Abstract Art is Real

2013.7.31-11.10

경기도 미술관

경기도미술관은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춘 친근한 미술관이 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친절한 현대미술 II - 추상은 살아있다>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경기도미술관이 수집한 다양한 소장품 중에서 추상미술 작품을 선별하여 관람객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하였습니다.

추상미술은 20세기 현대미술의 꽃이라 할 수 있으며, 미술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흔히 '추상미술' 이라고 하면 막연히 어려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추상미술을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색다른 6가지의 구성으로 작품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아울러 전시장 뿐 아니라 야외 조각 공원에도 작품을 배치하여 전시장 밖의 관객들과도 열린 소통을 모색합니다.

2 특별히 이번 전시작가 중 11명의 작가들이 현재 초·중·고등학교 미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방학을 맞아 전시장이 학생들이 책 속에서만 보던 작가와 작품들을 실제로 관람할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시 제목처럼 '친절한' 미술 이해를 위해 어린이·청소년 감상 가이드와 일반인 대상의 알기 쉬운 전시 해설이 함께 수록된 전시 가이드북을 배치하여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이번 <친절한 현대미술 II - 추상은 살아있다>전이 현대미술과 관람객과의 어렵지 않은 만남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이 전시를 통해 도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경기도미술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최효준
경기도미술관장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is pleased to open the exhibition entitled <Closer to Contemporary Art II - Abstract Art is Real>. This exhibition presents Abstract art works collected throughout the years with our efforts to be an approachable art museum.

Abstract art plays a key role and is a crucial part of 20th century art history. However, 'Abstract art' seems to be unapproachable to many viewers who are unfamiliar with contemporary art. We would like to introduce Abstract art in an easy and familiar way by dividing the exhibition into six sections. We are also presenting the art works not only in the exhibition space but also in the outdoor sculpture park to connect visitors outside the museum space.

Especially, the 11 artists of this exhibition are included in textbooks currently used in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he exhibition provides an opportunity to see the art works that usually can only be seen in student books. As can be understood by the exhibition title, this exhibition tries to help viewers understand Abstract art through an exhibition guidebook that contains highly considered explanatory statements and a self-guide for children and students.

I look forward to this exhibition <Closer to Contemporary Art II - Abstract Art is Real> helping the viewers gain an understanding of the difficult and perplexing aspects of contemporary art and give the local residents an opportunity to see GMoMA as more approachable, feeling like it has come one step closer to them.

Hyo-Joon Choi
Director,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20세기에 이르러 현대미술은 주제, 재료, 표현 방법 등에 있어 기존의 미술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추상'이 있다. 추상미술은 다양한 미술 운동의 집약체로 현대미술의 가장 중요한 예술 혁명 중 하나이다. 20세기 역사와 문화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추상미술을 이해함으로써 현대의 사상, 사회, 문화의 본원적 특징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삶에서 추상적인 표현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많다. 일례로 우리 생활 속에 자리 잡은 단순하고 간편한 형태를 지닌 대부분의 사물들도 결국 추상미술의 덕택이다. 21세기에 이르러 동시대 미술이 다양한 시도와 접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마련한 것 또한 추상미술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친절한 현대미술 II - 추상은 살아있다>는 어렵게만 느껴지는 현대미술을 대중에게 쉽고 친근하게 소개하고자 기획되었다. 경기도미술관의 소장품 중 추상미술 작품을 선별하고 추상미술의 맥락을 대중 친화적으로 재해석한 이번 전시는, 기존의 서양 미술사적 분류 형식이 아닌 '추상, 세상을 분석하다.' '내면을 표현하다.' '순수를 지향하다.' '사물이 된다.' '세상에 저항하다.' '일상 속에 살다'라는 6개의 주제로 작품 감상의 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추상미술의 의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현대미술이 어렵다고 느끼는 관객들에게 추상미술을 다양한 각도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관람객들은 <친절한 현대미술 II - 추상은 살아있다>전을 관람하는 동안 추상미술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추상'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비롯된 정신의 산물이라 표현 의지라는 점에서 관람객을 스스로가 '추상은 리얼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백아영

In the 20th century, art appeared totally different from previous art movements, not only in form but also in the way of approaching the subject. Abstract art in the 20c represents various art movements and is a core of 20th century art history. Also, it is a product of history and culture developed from Western functionalism and socialism. That is why I consider understanding Abstract art as understanding an original idea, society and culture of the contemporary period. Without the appearance of 'Abstract art', a lot of things would not have been able to occur. It is due to Abstract art that the forms of many objects and features are simplified and convenient. 21c's most experimental contemporary art movements also developed from the concept of Abstract art.

<Closer to Contemporary Art II - Abstract Art is Real> presents 40 Abstract art works from the collection of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GMMoMA has continuously made efforts to be 'closer' to the public through contemporary art and this exhibition is divided into six sections to enhance visitors' better understanding of Abstract art.

Suggesting a new interpretation of artworks through six themes including 'Abstract art, analyzing the world, expressing the mind, aiming for purity, becoming the material, protesting the world, living in daily life' we would like the visitors naturally to discover characteristics and the value of Abstract art. In the exhibition, the meaning and significance of Abstract art will be reviewed and the visitors who find contemporary art unapproachable will be kindly introduced to Contemporary art. In the vacation season, we would like to provide a chance for students to see the art works introduced in their textbooks. Furthermore, we would like the visitors to ask themselves "What is Abstract art?" while walking through the exhibition space.

Ahyoung Baek

추상, 세상을 분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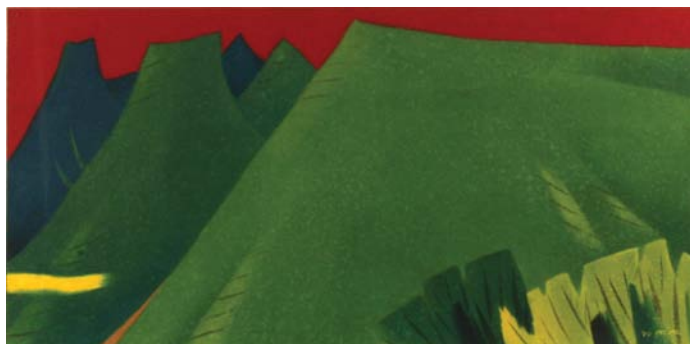
Abstract art, analyzing the world

민경갑
박영남
유영국
이수억
전국광

사물이 가진 본질을 탐색하고 고유의 방식으로 분석하여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가들을 소개한다. 자연, 동물 등 구체적인 대상의 이미지를 단순화하고 변형하여 세상을 분석하는 추상이다.

In this section, I would like to introduce Korea's analytical abstraction, which is made by simplifying and modifying the specific target image, such as nature, and then searching for the essence of objects and expressing their plastic beauty.

4



민경갑 Min Kyung-Kap

자연과의 공존
Harmony with Nature

화선지에 먹, 채색, 49x100cm, 1994
Indian ink and color on Korean paper, 49x100cm, 1994

민경갑은 1970년대부터 발묵과 번지기 효과를 이용해 왔으며,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진한 채색과 색의 대비를 보여주는 그림을 선보였다. 원색(청, 적, 황)의 색감이 눈부시게 발하는 이 작품은 멀리서 보면 마치 유화로 그린 것처럼 또렷한 색감이 먼저 들어오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선지 위로 번져나간 윤필이 아름답다.

발묵: 먹물이 번지게 보이도록 표현하는 한국화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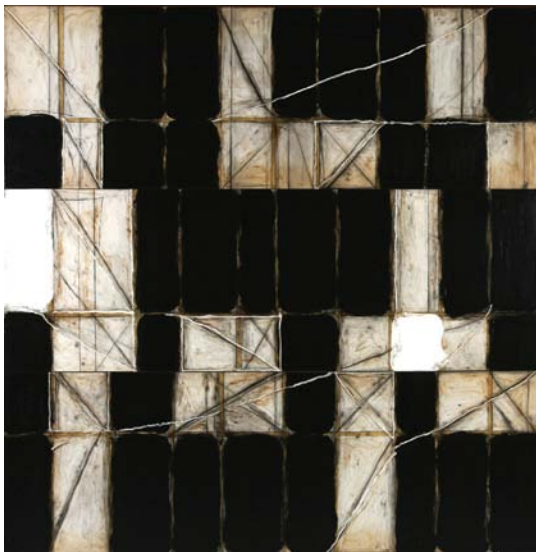
박영남 Park Yung-Nam

**하늘에 그려본 풍경
Landscape against Blue Sky**

캔버스에 아크릴, 173x173cm, 1995
Acrylic on canvas, 173x173cm, 1995

박영남은 풍부한 감성과 훈련이 잘 된 손을 가진 작가로 알려져 있으며, 이 작품에서 붓 대신 손가락을 이용한 핑거페인팅 기법을 구사한다. 이 작품은 광선이라는 추상적 형태의 구체적 영상을 표현한 것으로, 태양빛과 자연 속 아름다운 색채를 그려내었다.

핑거 페인팅 Finger painting: 손가락이나 손바닥에 물감을 묻혀 그리는 회화의 표현 기법



5

유영국 Yoo Young Guk

**산
The Mountain**

캔버스에 유화, 132x132cm, 1997
Oil on canvas, 132x132cm, 1997

색채추상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유영국은 산을 소재로 많은 작품을 제작하였다. 그는 '산'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에서 벗어나 형태와 색상을 가장 단순화 시키고, 절경에 이른 듯 한 원색으로 산 전체를 표현하였는데, 이는 유영국 만의 독특한 기법이다. 이 작품은 구상화적인 패턴을 기본 구조로 하면서 강렬하고 순수한 색채 표현으로 추상화의 매력을 잘 표현한 〈산〉 연작 중의 하나이다.





이수억 Lee Su-Eok

소 Cow

캔버스에 유화, 97x132cm, 1954
Oil on canvas, 97x132cm, 1954

한국의 근대미술의 주류가 형성될 무렵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수억은 광복과 전쟁이라는 흐름 속에서 한국적인 작품 경향을 보인다. 이는 소의 형상을 큐비즘 기법을 시도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전국광 Chun Kuk Kwang

삼박의 향 1 The Fragrance of Sambac 1

화강석, 50x130x57cm, 1988
Granite, 50x130x57cm, 1988

일정한 크기의 화강석을 여러 장 쌓아 만든 〈삼박의 향 1〉은 작가가 주로 사용하는 재료와 형태를 잘 보여준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면서도 강직한 운동성이 느껴지는 작품으로, 자연에 충실하고자 하는 기본 원리로 만들어졌으며, 화강석을 쌓고 세우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굴곡과 그에 따른 반복되는 운동감이 특징이다.

추상, 내면을 표현하다

Abstract art, expressing the mind

남궁원
노시는
박준수
서세옥
윤명로
이 인
전원길
황석봉

추상미술은 형상(形象) 너머로 본질을 추구한다. 이 섹션에서는 마음으로 세상의 이치를 포착하여 표현하는 서정추상 작품을 소개한다. 마음은 형태와 색채를 대담하게 고르고 선택하곤 한다. 정신이 깃든 부분은 될 수 있는 한 분명하고 정확하게 공들여 표현하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최대한 간략하게 생략한다.

There are abstraction works that show the world and emotion in the mind of the artist and tell the mind of the East. It is called the 'lyrical abstraction'. The artists introduced in this section draw and express the existing object not using the things appearing to the outside but using new forms of things found inside themselves. So, if we see their works, we can see what the artists have in their minds.

7



남궁원 Nam Goong Won

허수아비 - 여름
Scarecrows - Summer

캔버스에 아크릴, 150x150cm, 2006
Acrylic on canvas, 150x150cm, 2006

허수아비 작가로 알려져 있는 남궁원은 허수아비를 마치 인간의 모습처럼 그만의 독특한 표현 언어로 형상화하였다. 어느 여름날 시골에서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의 허수아비를 그린 것으로 시골이 가진 즐거움을 나타내기도 한 작품이다.



노시은 Rho Si-Eun

카리스마
Charisma

동, 용접, 230x55x70cm, 2000
Copper, welding, 230x55x70cm, 2000

권력을 상징하듯 곧게 서 있는 이 형상은 딱딱한 덩어리가 가진 힘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외부의 적을 향해 머리를 쳐 든 코브라 혹은 사람의 등뼈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결코 긴장을 놓을 수 없도록 저항과 충돌 사이에서 있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의 실체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박준수 Park Jun-Soo

Virus-오늘날의 장자는 어디에 있는가
Emptiness is Everything and Everything is
Emptiness - Virus

한지에 채색, 122x122cm, 2005
Color on Korean paper, 122x122cm, 2005

동양의 미의식을 현대적인 한국화로 새롭게 보여주는 박준수는 풍경 소리 작가로 알려져 있으며 동양화를 통한 새로운 대중 예술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이 작품은 유교주의 문화의 잔재들과 그러한 범주의 테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억압된 상황에 대한 갈등을 화폭에 담아낸 그림이다.



서세옥 Suh Se Ok

**춤추는 사람들
Dancing People**

한지에 수묵, 164x260cm, 1987
Indian ink on Korean paper
164x260cm, 1987

서세옥은 파격적인 수묵추상 작업으로 한국 현대미술에 새 바람을 일으키며 한국화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가로 그의 작품은 대부분의 미술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다. 그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인간의 형상을 바탕으로 자연에 동화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찾고자 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 작품은 몇 개의 단순한 선으로 사람의 형상을 표현하면서도 동작과 표정이 매우 풍부하며, 단순화된 인간의 형상과 묵법의 기운이 빛어내는 특유의 공간 구성을 보여준다.



윤명로 Yoon Myeong-Ro

**익명의 땅 91310
Anonymous Land 91310**

유화, 아크릴, 실크스크린, 184x230cm, 1991
Oil, acrylic, silk screen, 184x230cm, 1991

거칠고 호방한 붓 자국과 캔버스에 넘쳐 나는 물감의 흔적을 보여주는 추상화이다. 자연과 전통에 대한 관심에서 검재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눈을 넓힌 작가는 작품을 통해 검재의 인왕제색도에 대한 예찬을 보여준다.

검재 정선: 조선 후기의 화가(1676-1759)로 중국의 풍경이 아닌 우리나라의 산수를 그린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라는 우리 고유의 화풍을 개척하였다.

인왕제색도: 검재 정선이 인왕산을 그린 진경산수화로 국보 제216호로 지정되어 있다. 물감을 묻혀 그리는 회화의 표현 기법



이인 Lee In
색색풍경
Mind - Space

한지에 분채, 전통채색기법
90x90cm(2점), 2004
Color and Indian ink
on Korean paper
90x90cm(2pcs), 2004

이인의 작업은 특히 색으로 표현되며 그에게 색이란 유한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 작가는 형형 색색의 색을 통해 인간의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현실을 초월한 이상향의 세계를 동경한다. 이 작품 속 자연스러움이 배어나는 색 면들은 그가 일상 안에서 끊임없이 자연을 인식하고 발견한 결과이다.

10

전원길 Jeon Won-Gil

앉아있는 사람 A Seated Man

캔버스에 아크릴, 162x130cm, 1997
Acrylic on canvas, 162x130cm, 1997

기하학적인 형태와 유기적인 붓 터치를 이용하여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물리적 속성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 속성을 표현한 작품이다.



황석봉 Hwang Suk-Bong

건위천(乾爲天) GUN WI CHUN

화선지에 수묵, 아크릴, 192x264cm, 1995
Acrylic and Indian ink on Korean paper, 192x264cm, 1995

화선지에 힘차게 그려진 문자추상을 매개로 한 작품 〈건위천〉은 주역에서 말하는 위대한 창조력의 근원을 뜻하며 이 근원의 힘에서 천지만물이 생성된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강력한 필치를 통해 그러한 힘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주역: 유교의 경전 중 하나로,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인 동시에 가장 어려운 글로 알려져 있음

추상, 순수를 지향하다

Abstract art, aiming for purity

강신영
곽인식
김봉태
김찬식
신한철
이용덕
이웅배
정광식
하인두
홍승남
홍승혜

자연과 대상, 정신을 이야기하는 추상이 있다면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순수한 형태를 만드는 순수 추상이 있다. 대상의 겉모습을 단순하게 재현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형상과 모양을 찾아내어 강조하는 추상이다. 점, 선, 면과 같은 기하학적인 형태를 반복적으로 보여주거나, 상징적인 이미지와 기호를 시각화 하기도 한다.

If there is an abstraction telling of nature, objects and the mind, as introduced before, there is also pure abstraction that is made in a pure form not existing in the world. It is the abstraction that does not simply reconstruct the appearance of existing things but finds new forms and appearance and emphasizing them. Here, geometric forms such as the spot, line and side appear repetitively and symbolic images or signs can be visualized.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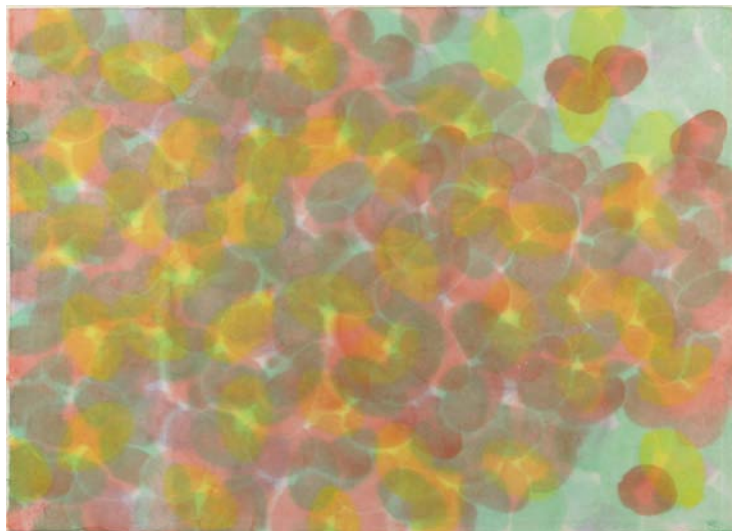


강신영 Kang Shin-Young

하나에 관한 명상
Meditation on 'One'

스테인리스, 90x120x167cm, 2005
Stainless, 90x120x167cm, 2005

하나로 연결된 형태를 통해 자연 현상의 순환 논리와 물과 빛의 이미지를 나타하고자 한 작품이다. 스스로 존재하고 말하는 자존적인 생명체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스테인리스가 가진 물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압축하고 팽창하는 에너지를 보여주며 조각 속에서 나타나는 회화성을 발견하려 한다.



곽인식 Guac In Sik

작품(연작) Work(series)

일본종이에 수채, 54,2x72cm, 1986
Water color on Japanese paper, 54,2x72cm, 1986

물질에 대한 관심을 촉발한 선구자인 곽인식은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전통적인 일본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작은 타원형으로 단순화시킨 일정 형태의 맑고 투명한 색상 이미지를,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구성으로 전개시키는 평면 회화를 보여준다.



김봉태 Kim Bong Tae

비시원 91 NONORIENTABLE 91

캔버스에 아크릴, 180x180cm, 1988-1989
Acrylic on canvas, 180x180cm, 1988-1989

이는 〈비시원〉시리즈 중 하나로 커다란 원형, 타원형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에워싸는 여러 가지 형태와 다양한 색채로 이루어져있다.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지만 주된 모티브를 이루는 것은 순수 기하학이나, 색동의 팔랑개비, 색동저고리, 단청문양처럼 보이는 비정형의 이미지들이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한국을 중심에 두고 세계를 이해하려는 사상에 바탕을 둔 작가의 조형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단청: 다섯 가지 색(청, 적, 황, 백, 흑)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에 여러 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 장식하는 것.

김찬식 Kim Chan-Shik

정
Feeling

브론즈, 95x20x20cm, 1995
Bronze, 95x20x20cm, 1995

김찬식은 1979년 이후 '생명'과 연관된 '정'이라는 명제에 대한 작업을 보여주는데 이는 6·25 전쟁 때 헤어진 북한의 혈육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과 만날 날의 소망을 기도의 조형 언어로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굵은 철선을 재료로 하여 인체의 형태를 가장 단순한 선으로 축약시켰으며, 두 사람의 형상이 하나로 이어져 서로 정감을 나누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신한철 Shin Han chul

생명의 요소
Element of Life

스테인리스 스틸, 113x83x70cm, 2004
Stainless steel, 113x83x70cm, 2004

각각 크기가 다른 일곱 개의 구를 모아서 만든 신한철의 〈생명의 요소〉가 보여주는 연속적 결합은 동어 반복적 결합이 아닌 생명의 구체적 표출로서 생성과 호흡의 다른 의미이다. 이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원시적이며 근원적 형태를 볼 수 있으며, 힘, 운동, 성장, 삶의 메시지를 사유할 수 있다. 또한 표면의 거울효과는 내부 에너지의 응집을 위한 외부세계의 반영이며, 비추어진 대상에 대한 잉태와 세상과의 소통을 의미한다.



이용덕 Lee Yong-Duck

**원을 그리며 순환하다
Move in Circle**

나무, 브론즈캐스팅, 165x143x48cm, 2005
Wood, bronze casting, 165x143x48cm, 2005

일정한 간격으로 판재에 홈을 내 둥근 형태를 만드는 인테리어 기법을 조각 작업에 도입한 작품이다. 마치 뱀비우스 띠처럼 순환하는 유기적이며 기하학적인 형상을 통해 존재론적이고 실존적인 시간의 개념과 순환하는 시간을 표현한다.



이웅배 Lee Ung Bai

**공동체
Community**

철, 우레탄 도장, 150x290x230cm, 2010
Iron, urethane coating, 150x290x230cm, 2010

이웅배 작가는 촉각을 통한 감상을 중요시 여긴다. 관객은 작품에 직접 참여하여 작품을 만질 수도 있고 작품 위에 올라갈 수도 있다. 작가가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것과 유사한 감정을 관람객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공동체〉를 통해 작가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정광식 Jung Kwang-Sik
행위의 잔상
Images after Action

오석, 카빙, 65x110x13cm, 2005
 Obsidian, carving, 65x110x13cm, 2005

오석판을 사용하여 무수한 끝의 흔적을 남기는 조각 기법을 도입하여 시각적 효과를 내는 추상 조각으로, 정광식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 자칫 투박할 수 있는 돌(오석)의 표면을 캔버스삼아 부조하듯이 깎고 색채를 입혀 도시 공간, 바다와 산, 섬 등 거대한 풍경을 나타낸다.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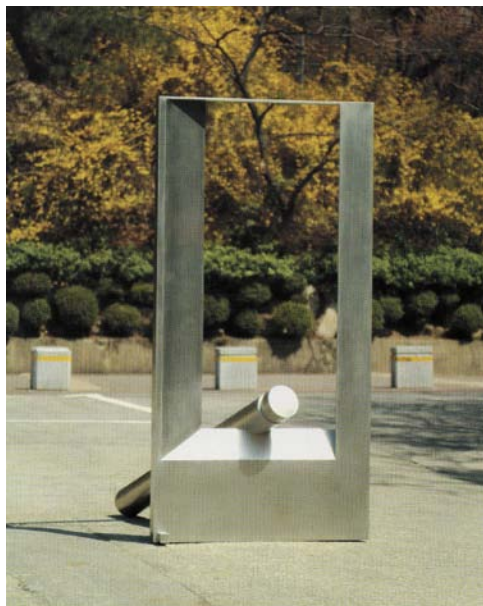
하인두 Ha In Doo
무제
Untitled

캔버스에 유화, 160x129cm, 1986
 Oil on canvas, 160x129cm, 1986

우리나라의 단청이나 스테인드글라스를 연상시키는 강렬하고 화려한 색감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작가는 생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빛과 색이라는 요소로 표현하고, 인간의 고뇌와 고통을 투명하게 빛나는 푸른색 빛으로 재현해낸 색채 추상이라 할 수 있다.

스테인드글라스 Stained glass: 유리에 색을 칠하거나 색유리를 이어 붙여무늬나 그림을 나타낸 장식용 판유리.





홍승남 Hong Seung-Nam

존(存)
Existence

스테인리스 스틸, 200x100x140cm, 2005
Stainless steel, 200x100x140cm, 2005

정육면체가 지닌 형태의 명쾌함과 스테인리스 스틸의 차가운 금속성이 결합된 이 작품은 단순한 형태가 보여주는 간결한 이미지와, 재료에서 나타나는 기계적인 특성을 지닌다. 기하학적으로 보이는 작품 형태는 '둥근 것과 모난 것'을 뜻한다.

16

홍승혜 Hong Seung-Hye

온 앤 오프
On & Off

철 파이프에 폴리우레탄, 460x345x345cm, 2010
Polyurethane on steel pipe, 460x345x345cm, 2010

디지털 픽셀의 기본 조형 단위인 사각의 그리드를 이용하는 이 작품은 3차원의 입체로 만들어지면서 주변과 어우러지는 진화를 이루었다. 'On&Off'는 'On&Off the grid' 즉, 그리드의 안과 밖을 뜻한다. 수평·수직 그리드 작품을 주로 제작하는 작가는 3차원의 공간 속에서 그리드 체계를 벗어난 구조물을 제작하기도 한다.

그리드 grid: 사전적 의미로는 격자, 바둑판의 눈금 등을 말하며, 그리드는 판면을 구성할 때에 쓰이는 가상의 격자 형태의 안내선을 말함



추상, 사물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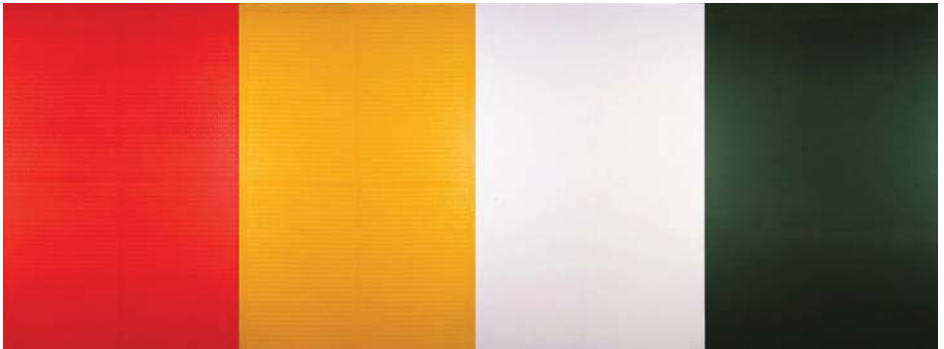
Abstract art, becoming the material

김기린
김창열
박서보
신성희
윤형근
정창섭
하종현

인위적으로 꾸며낸 행위들을 없애고 물질에 대한 관심만을 보여주는 추상이다. 이 섹션의 작가들은 물감, 종이, 캔버스 등 작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재료가 가진 특수한 성질, 즉 물성을 발견하려 한다. 또한 색채와 선을 최소화하여 사물이 가진 현상 자체와 물질적 의미에 주목한다. 단색화(모노크롬)가 이에 속하며 단순화된 색면들이 주를 이루는 작품들이 많다.

In this abstraction, artificially made behaviors are removed and the interest in objects are displayed. The artists in this section try to find out the special properties in basic materials that constitute the works, such as paint, paper and canvas. In addition, they emphasize the phenomenon of objects themselves, and their materialistic meanings, by minimizing the use of color and lines. Monochromatic paintings fall on this category, along with the works emphasizing simplified col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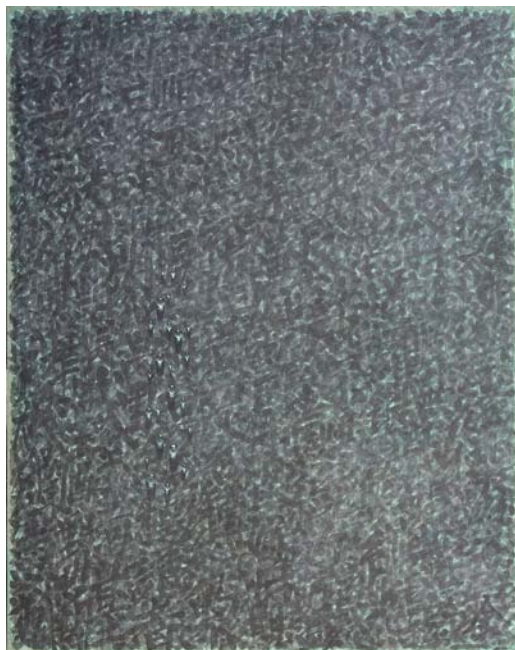
17



김기린 Kim Gui Line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Inside Outside

캔버스에 유화, 각 195x130cm(4점), 1980
Oil on canvas
Each 195x130cm(4pcs), 1980

김기린은 한국 단색화의 계보를 잇는다. 작품 속 사각형은 땅을, 그 속의 점은 태양을 의미한다. 처음 화면에는 일정한 가로와 세로의 선에 의해 생겨난 그물망과 거기에서 생겨난 수많은 작은 단위의 상자 속에 다시 일정한 크기의 색 점이 일률적으로 찍힌다. 비어있는 공간과 그 공간을 다시 채우는 점은 비어있는 것을 뜻한다. 그 위에 다시 색면을 반복해서 칠함으로써 원래의 선과 점들은 잠재되는 요소로 남게 된다.



김창열 Kim Tschang Yeul

회귀 LA89004 - 89

Recurrence LA89004 -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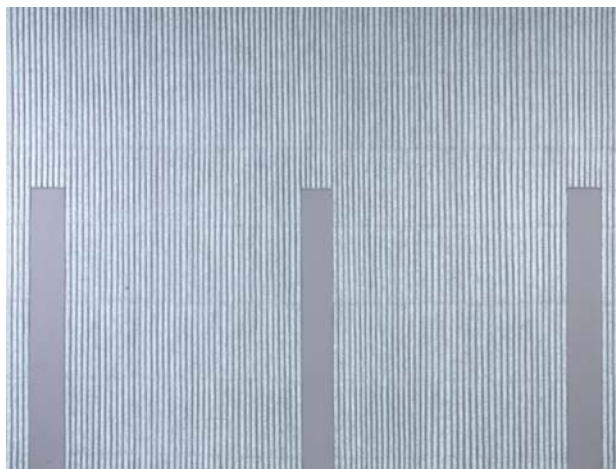
캔버스에 유화, 230x182cm, 1989

Oil on canvas, 230x182cm, 1989

김창열의 극사실주의적 물방울 작품은 초기의 응집력이 강한 물방울에서 바깥에 스며들기 직전의 물방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1986년을 전후해서 순수하게 물방울만 드러났던 전반기와 물방울의 바닥에 글씨를 써넣은 후반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작품은 후반기에 해당한다. 그림에 쓰인 글씨는 한적(漢籍)들로, 물방울은 이 검은 글씨 위에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창의인 발상과 완벽성이 요구되는 회화기법을 통하여 물방울이란 매체로 우리에게 영원한 명상의 기회를 주고 있다.

한적(漢籍): 중국인이 편찬하거나 저술한 책

18



박서보 Park Seo Bo

묘법 NO.031219

Ecriture NO.031219

캔버스에 한지, 혼합재료, 182x228cm, 2003

Mixed media, Korean paper on canvas, 182x228cm, 2003

정교한 드로잉에서 시작되는 이 작품은 오랜 시간 물에 담가둔 한지를 캔버스에 올리고, 반복되는 행위로 수많은 골을 만들어, 그것을 굳히고 틀을 잡아 그 위에 색을 입히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는 박서보 특유의 회화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길게 뻗어나는 묘법의 반복은 독특한 평면 구조를 만들어 낸다. 박서보는 자연을 완전히 소유하기 위해 스스로의 존재를 투명한 상태로 만들고 형태, 형상, 구성, 색채, 선 등을 최소화하였다.



신성희 Shin Sung Hy

회화 - 77
Work - 77

마대 위에 유화, 123x194cm, 1977
Oil on gunny bag, 123x194cm, 1977

〈회화-77〉은 신성희의 작품이 3차원적 입체 회화로 발전하기 전의 초기 작품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채색된 화폭의 단편들은 점묘법이나 표현주의적 붓터치를 떠올리게 한다. 유기적인 이러한 짧은 붓터치가 화면 전체를 지배한다. 이 작품은 한국의 모노 크롬 회화가 시작 될 때 작업양상을 풍부하게 설명해주는 중요한 미술사적 의미를 지닌다.

점묘법: 점을 찍거나 점과 같은 작은 터치로 묘사하는 회화 기법.

표현주의: 르네상스 이래 유럽 미술의 전통적 규범을 떨쳐버리려 했던 20세기 미술 운동 중의 하나로 왜곡되고 과장된 표현이 주를 이룬다.

19

윤형근 Yun Hyong Keun

태운 암갈색 & 군청색의 블루
Burnt Umber & Ultramarine

린넨에 유화, 270x140cm, 1978
Oil on linen, 270x140cm, 1978

윤형근은 색상을 점차 줄여가는 과정을 통해 청색과 갈색으로만 이루어진 화면을 만들어낸다. 바탕을 칠하지 않은 캔버스는 이 색들을 흡수하여 묘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다색과 청색의 혼합은 어두운 색으로 얼핏 보면 검정색과 구별하기 어렵지만 이것은 원래부터 검정색이었던 색과 달리 미묘한 변화를 보여주며 깊이감을 만들어낸다. 단순하고 정형화된 윤형근의 회화는 그 조용함 속에 화면 외부의 공간까지도 흡수하는 힘이 있으며, 감각적인 것과 표현적인 것으로부터의 탈피, 평면과 공간, 색 면과 여백의 어우러짐을 보여주고 있다. 물감과 캔버스라는 물질에 집중하여 가장 기본적인 회화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정창섭 Chung Chang Sup

楮(저) NO. 84100
Tak NO. 84100

천에 닥 섬유, 140x240cm, 1984
Best fiber on cotton, 140x240cm, 1984

정창섭은 '닥'이라는 재료 고유의 물성에 정신을 담아내기 위하여 작위적인 조형의지에서 벗어나 한국적 미감을 극대화 하고, 닥종이를 통해 물질과 자신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다. 그는 시간의 흔적과 자연의 변화를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화면 중앙은 텅 빈 공간으로 남겨 보는 이를 명상에 잠기게 하고, 가장자리에는 닥종이의 질감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이 작품에서는 동양화의 여백의 미를 볼 수 있다.

20



하종현 Ha Chong Hyun

결합 83-077
Conjunction 83-077

대마천에 유채로 배제기법. 220x360cm, 1982
Oil on and pushed from back of hempen cloth
220x360cm, 1982

간단한 형태와 자연스러운 색채로 인해 단순하고도 명쾌한 느낌을 주는 작업이다. 절제된 색은 자연이 품고 있는 대지의 색이며, 무엇 하나 강조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모노크롬 양식을 개척해온 하종현은 'conjunction(결합)'이라는 하나의 명제에 집중해 왔다. 이는 캔버스 위에 붓으로 형상을 그리는 대신 캔버스 마대를 최대한 살려 마대의 사이에 빠져나온 물감을 도구 또는 손으로 문지르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화면이라는 것은 그림이 그려지는 면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물질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알려주는 작품이다.

모노크롬 Monochrome: 다색화(polychrome)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단일한 색조를 명도와 채도에만 변화를 주어그린 것

추상, 세상에 저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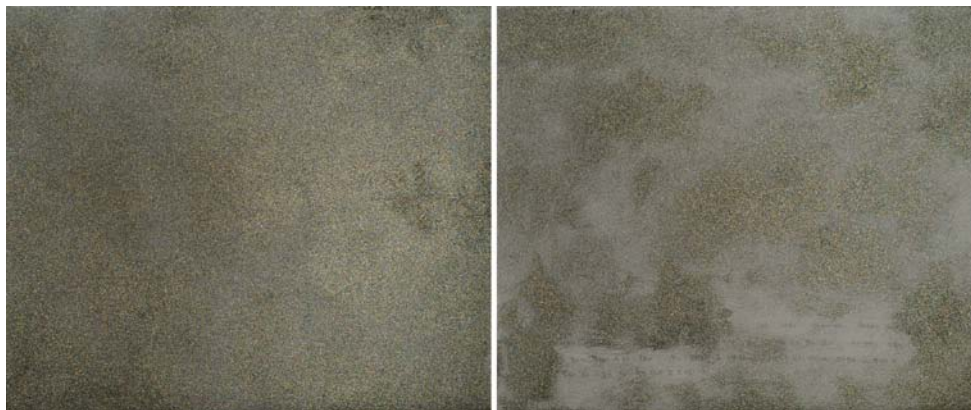
Abstract art, protesting to the world

김용익
성능경
피터 헬리

추상미술은 다양한 실험 매체를 통해 기성 사회의 부조리함과 권위에 대한 거부를 표현하기도 한다. 기존의 대상, 물질, 정신에 대한 탐구와 더불어 개념미술의 성향을 띤 추상미술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기존의 기하학적인 추상을 패러디하기도 하며, 추상미술이 가진 권위에서 벗어나려 하고 세상에 저항하는 작품들을 소개한다.

Abstract art sometimes expresses the rejection of absurdity and authority in existing society by using various experimental media. In addition to searching for the object, substance and mind, there is also the Abstract art that has the tendency of Conceptual art. It sometimes parades existing geometrical abstraction and tries to get out of the authority of abstract art itself and resist against the world.

21



김용익 Kim Yong Ik
가까이... 더 가까이...
Closer... Much Closer...

캔버스에 혼합재료, 각 60.5x72cm(2점), 2001
Mixed media on canvas, Each 60.5x72cm(2pcs), 2001

〈가까이... 더 가까이...〉라는 제목은 더 가까이 다가와서 작품을 보아달라는 의미이다. 멀리서 보면 미니멀리즘 회화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얼룩과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가는 선, 글씨, 얼룩, 붓털과 음모(陰毛) 등이다.



성능경 Sung Neung Kyung

넌센스 美術(미술) Nonsense Art

신문지, 포장박스에 구두약칠, 가변크기, 1989
Painted shoe polish on newspaper and wrapping paper box
Dimensions variable, 1989

성능경의 작품 세계는 두 단계로 구분되는데, 1970-80년대 개념적 이벤트와 사진 설치 작업, 90년대의 포스트모던 계열의 퍼포먼스이다. 이는 작가를 70-80년대 아방가르드적 실험기를 거쳐 개념예술가로 자리매김하게 한 개념적 실험 예술 작품으로, 1980년대 한국 현대 미술의 구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포스트모던 Post Modern: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도 하며 직역하면 '모던(근대) 이후' 라는 뜻으로, 이성주의에 반발함을 내포하고 자유로운 감성을 표현하는 사상을 이야기한다.



피터 할리 Peter Halley

폭발중인 감옥 Exploding Cell Paper

실크스크린, 94x122cm(9점), 1994
Silk screen, 94x122cm(9pcs), 1994

피터 할리는 기하학적 추상을 패러디 한다. 미니멀적 기하 추상에 키치를 차용하여 모더니즘의 형식주의를 비판하는 그의 작품은 네오-지오, 모조추상, 모조주의 등으로 불린다. 컴퓨터 출력물, 컴퓨터 회로의 모양, 세포구조의 드로잉, 도로와 공항 활주로 설계도 등 도시적인 기하 형태를 통해서 할리는 추상 미술이 순수하게 자기 참조적인 양식이 아님을 보여주며 20세기 초부터 모든 과학 영역에 자리 잡은 수학적 모델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미니멀 Minimal: 장식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표현을 최소화하는 미술 기법과 양식
키치 Kitch: '세계 만들다' 라는 뜻을 가진 독일어에서 유래된 말로 저속한 작품, 하찮은 예술품을 지칭함
차용 Appropriation: '빌려온다' 라는 의미로 예술작품, 광고, 미디어 등에 이미 쓰여진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에 합성하여 전혀 다른 작품을 창조하는 제작 방법을 말함

추상, 일상 속에 살아

Abstract art, living in daily life

고산금
곽남신
김영수
노상균
박용석
홍승현

현대에 이르러 추상은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까지 우리 삶 속에 살아 숨 쉬며 관객과 가까워진다. 작가들은 신문 기사, 버스 손잡이, 시장에 파는 곡물, 옥상의 물탱크 등 일상과 현실 속에 살아 있는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상화 한다.

These days, Abstract art is close to our life and artists use what is around us, such as doing daily things, as criticism of modern society. Artists make abstract art by using the things around us, including newspaper articles, the grip strap inside a bus, grains sold in the market, and a water tank on the rooftop, in various ways.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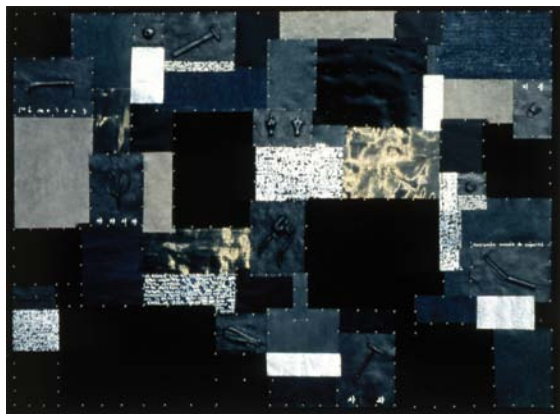


고산금 Koh San Keum

동아일보 사설
(2007.01.12, A36, A35)
Dong-A News Paper Opinion
(2007.01.12, A36, A35)

판넬에 기차 진주, 아크릴 물감, 접착제
63.5x91.5cm, 2007
Fake pearl on panel, acrylic, glue
63.5x91.5cm, 2007

동아일보 신문에서 발췌한 사설 속 글씨 부분을 진주알로 대체시킨 작품이다. 이 사설은 북한 핵과 정치, 기러기 아빠를 양산하는 현대의 가족, 한국의 교육실정, 장강제 광고 등 한국사회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산금은 텍스트가 지닌 진실과 오독의 가능성, 언어가 가진 투명하면서도 동시에 불투명한 특성, 의미의 폭로와 의도적 은폐 같은 양면성을 시각 언어로 재탄생시킨다. 텍스트는 진주알로 이루어져 실제로는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글이 갖는 의미는 사라지고 시각적인 조형성만 남아 관람객에게 재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곽남신 Kwak Nam-Sin

오브제 퍼즐 Object Puzzle

캔버스에 종이부조, 흑연, 알루미늄
193.9x259.1cm, 1999
Paper on canvas, graphite, aluminum
193.9x259.1cm, 1999

〈오브제 퍼즐〉은 시대의 관심사를 집대성한 만물상 같은 작품으로 우리 삶에 관한 숫자, 글, 허구적 언어, 삶의 파편이라 할 수 있는 잡다한 오브제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오브제 Object: 기본적으로는 사물을 뜻하는 용어로, 일상에 쓰이는 생활용품이나 자연물 또는 예술과 무관한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서 분리하여 작품에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는 상징적 기능을 하는 물체를 총칭한다.



김영수 Kim Young soo

곡물 Grain

종이에 피그먼트 잉크
각 110x110cm(12점), 2007
Pigment ink on paper
Each 110x110cm(12pcs), 2007

광고 사진 전문가로 활동했던 김영수가 2004년 여름부터 3년간 전국의 시골 오일장을 돌아다니며 그 곳에 파는 물건들을 대형 카메라로 찍어낸 작품으로, 장터에서 발견된 낯설지만 정겨운 물건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아 그 본연의 가치와 소비의 근원을 들여다본다. 주변의 설명적인 요소들은 최대한 없애고 소재의 형태와 색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시점과 자연광을 선택해 촬영한 사진이다.

노상균 Noh Sang Kyoon

홀을 향한 전체
The Whole Towards the Hole

캔버스에 시퀀, 218x218cm, 1999
Sequins on canvas, 218x218cm, 1999

노상균은 시퀀이라는 재료를 캔버스에 붙여 그것의 각도와 빛의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작품은 평면이지만 조그만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통속적이고 즉물적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현대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거대한 우주로 향해 있는 정신적 은유를 담고 있다.

시퀀 Sequins: 반짝이는 얇은 장식 조각으로 금속,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으로 만들어지며 무대 의상이나 가방, 구두 등에 붙여 장식한다.



박용석 Park Yong Seok

서울, 부산 모더니즘
Seoul, Busan Modernism

사진, 종이에 아크릴, 150x206cm, 2001
Photograph, acrylic on paper
150x206cm,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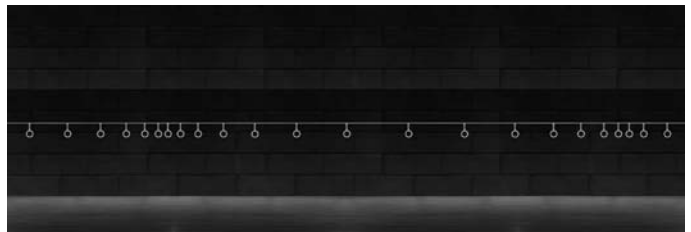
박용석은 서울의 물탱크는 노란 색, 부산의 물탱크는 파란색이라는 것을 발견한다. 이 차이를 통해 사람들이 당연시 여기는 도시의 삶이 사실은 조작되기 쉽고 견고하지 못하며, 이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동안 관습적 태도를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5

홍승현 Hong Seung hyeon

모던 타임즈 시리즈-버스 손잡이
Modern Times-Bus Straps

디지털 C-프린트, 25,4x76,2cm, 2007
Digital C-print, 25,4x76,2cm, 2007



버스 손잡이를 잡고 늘어져있는 사람들을 힘없이 널려있는 빨래들에 비유한 작품이다. 작가는 <모던 타임즈 시리즈>를 통해 현대의 다양한 원리와 제도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공간들을 그것들의 모습대로 디자인해 나가는 것을 시각화해왔다. 이 작품은 또한 하나의 이미지(버스 손잡이)를 또 하나의 이미지(빨래)에 빗대어 표현하는 일종의 사진적 비유를 보여준다.

[illegible]

추상, 내면을 표현하다

감상포인트! 작가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내적인 감성을 표현했을까요? 작품들을 보고 각각 어떠한 대상을 형상화한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작품탐구 1.



윤명로 <익명의 땅 91310>

*교과서 수록 작가 (중등미술,교학사2010)

작가는 왜 캔버스에 붓과 물감의 자국을 그대로 남겨두었을까요? 그러한 자국을 남기는 것이 작품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나요?

작품탐구 2.



서세옥 <춤추는 사람들>

*교과서 수록 작가 (초등미술3,4교학사2010/중등미술3,교학사2002,두산동아2010/고등미술,시공사,천재교육2010)

먼저 작품의 제목을 보지 않고 감상해 볼까요? 작가는 몇 개의 단순한 선과 점으로 무엇을 표현하고자 했을까요?

생각해보기 1. ‘추상, 내면을 표현하다’에 전시된 작품들을 감상해보고, 나의 내면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떠올려 작가의 작품 세계와 연관 지어 마인드맵을 형성해봅시다.

추상, 순수를 지향하다

감상포인트! 작가들은 지상에 없는 작가가 상상하는 순수한 형태와 형상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작품 속에서 각각 어떠한 형태들이 표현되었는지 찾아봅시다.

작품탐구 1.



김봉태 <비시원 91>
*교과서 수록 작가 (중등미술, 교학사2010)

작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와 색채를 자세히 관찰해 봅시다.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나요?

생각해보기 2.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물의 모양을 조합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그려 봅시다.

추상, 사물이 된다

감상포인트! 작가들은 재료가 가진 특수성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작품을 보고 대상에서 받은 느낌이 재료의 특성을 살려 효과적으로 표현되었는지 관찰하면서 감상해 봅시다.

작품탐구 1.



김창열
〈회귀 LA89004 - 89〉
*교과서 수록 작가
(고등미술감상, 미진사2007)

작가는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어떤 물질을 함께 사용하였을 지 상상해 볼까요? 작품에 쓰인 글씨도 함께 찾아보고 연관 지어 생각해봅시다.

작품탐구 2.



윤형근
〈Burnt Umber & Ultramarine〉
*교과서 수록 작가
(고등미술, 천재교육2002/2007/2010)

이 작품에서 관찰할 수 있는 주요 색채는 무엇일까요?
단색 혹은 혼합색을 사용했을 때의 차이점을 느껴봅시다.

생각해보기 3. 작가들은 각각 어떤 방법으로 재료가 가진 특성을 표현했는지 살펴보고, 흔히 볼 수 없었던 재료와 기법으로 새로운 표현을 한 작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김기린 〈Inside Outside〉	김창열 〈회귀 LA89004-89〉	박서보 〈묘법 NO.031219〉	신성희 〈회화-77〉	윤형근 〈Burnt Umber & Ultramarine〉	정창섭 〈楮No. 84100〉	하종현 〈Conjunction 83-077〉
재료							
기법 / 특징							

추상, 세상에 저항하다

감상포인트! 작가들은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기존의 추상미술에 저항했는지 살펴볼까요?

작품탐구 1.



김용익 <가까이... 더 가까이...>

*교과서 수록 작가 (고등미술, 시공사2002/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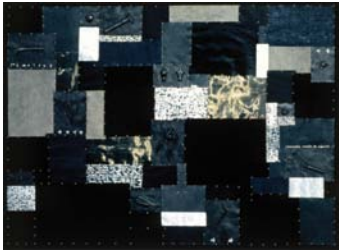
작품의 제목처럼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감상해볼까요? 멀리서 보았을 때와 가까이 다가가서 보았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보기 4. '추상, 세상에 저항하다' 전시 공간의 작품 하나를 선정하여 어떤 재료를 사용하였는지 알아보고 기존의 방식에 어떻게 저항했는지 살펴 봅시다.

추상, 일상 속에 살다

감상포인트! 현대에 이르러 작가들은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소재가 작품 속에 나타났는지 찾아보고, 현대미술 작가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일상을 추상화했는지 살펴봅시다.

작품탐구 1.



곽남신 <오브제 퍼즐>

*교과서 수록 작가 (중등미술, 교학사2010)

작품 속에 나타나는 오브제(물체)를 관찰해 보고, 어떠한 오브제가 사용되었는지 찾아볼까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한 시대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감상란

<친절한 현대미술 II - 추상은 살아있다>

전시 작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작품명/ 작가 :

2013 경기도미술관
특별기획전

친절한 현대미술 II - 추상은 살아있다

2013. 7. 31 - 2013. 11. 10

전시총괄

최효준(경기도미술관장)

전시담당

백아영

전시지원

박우찬(학예팀장), 김영미, 황록주, 한준영
이정현, 전지영, 김지희, 최기영

기획사업

박종강(기획사업팀장), 곽병길, 채정민
정승희, 한창규

디자인

장효진

어시스턴트

김은미, 남별님
김지은
김민영, 안윤희, 이주선, 장지영, 정지혜

인턴

김소령

도슨트

서주희, 도민영, 박정희

번역·감수

백아영

인쇄

푸른솔기획

공간연출시공

경기종합공사

작품운송·설치

(주)아트플러스

사인물제작·설치

B&B디자인

주최

경기문화재단

주관

경기도미술관

편집인

최효준 경기도미술관 관장

발행인

엄기영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발행처

경기도미술관

발행일

2013. 7

2013 Gyeonggi Museum of Contemporary Art
Special Exhibition

Closer to Contemporary Art II - Abstract Art is Real

July 31, 2013 - November 10, 2013

Director

Hyo-Joon Choi
(Director,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Curator

Ahyoung Baek

Curatorial Team

U Chan Park (Senior Manager, Curatorial Team)
Young Mee Kim, Rock-joo Hwang
Joon young Han, Jung-Hyun Lee
Ji young Jeon, Ji-hee Kim, Ki-young Choi

Business Planning

Chong Kang Park
(Senior Manager, Business Planning Team)
Byoung-kil Kwak, Seung hee Jung
Jung-min Chae, Chang gyu Han

Designer

Hyo Jin Jang

Assistant

Eunmi Kim, Byulnym Nam
Ji eun Kim
Min young Kim, yoon Hee An, Ju Sun Lee
Jee young Jang, Ji hye Jung

Intern

So ryung Kim

Docent

Joohee Suh, Minyoung Do, Junghee Park

Translation

Ahyoung Baek

Publication Printing

PUREUNSOL PLAN

Exhibition Space Construction

Gyeonggi Total Interior

Installation

Art Plus

PR Signs

B&B Design

Exhibition Organized by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Exhibition Hosted by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Editor

Hyo-Joon Choi
(Director,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Publisher

Ki-young Ohm
(President,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Date of Publishing

July 2013

©2013 경기도미술관

본 가이드북은 2013년 현대미술기획전 <친절한 현대미술 II - 추상은 살아있다> 전시를 위해 경기도미술관이 발행하였습니다.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도미술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13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All Rights Reserved.

This exhibition guide book is published in conjunction with 2013 GMoMA special exhibition 'Closer to Contemporary art II - Abstract art is Real' by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without prior permission from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경기도미술관 특별 기획 프로그램
〈미술이 음악을 만났을 때 vol.6〉

일 시 : 9. 14 (토)
장 소 : 경기도미술관 2층 〈추상은 살아있다〉 전시장
강 연 자 : 더 클래식 콰르텟(부천 필하모닉 수석 연주자 모임)
내 용 : 추상미술 작품을 배경으로 20세기 즉흥 추상곡을 감상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상세 내용 및 일정은 미술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신청은 온라인 사전신청과 현장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경기도미술관 렉처
‘각양각색미술사-추상, 세상을 뒤집다’ 연계 강연

일 시 : 8. 6 (화) 15:00 – 17:00
장 소 : 경기도미술관 1층 강당
강 연 자 : 코디최 작가
내 용 : 〈추상과 모더니즘〉

* 강연이 끝난 후 17시부터 참가자를 대상으로 전시장 투어가 진행 됩니다.
* 홈페이지 사전신청 선착순 마감됩니다.

관람시간

7월~8월 : 월~일요일 10am – 7pm
9월~11월 : 평일·일요일 10am – 6pm / 토요일 : 10am ~ 7pm
*연장운영 홈페이지 참조

매월 두번째, 네번째주 월요일 휴관(단, 공휴일 제외)

관람요금

성 인 : 4,000원
초/중/고등학생 · 군인 · 청소년 : 2,000원
48개월 이상 미취학아동 : 1,000원 (할인적용 제외)
단 체 : 20인 이상 성인 2,000원 / 학생 1,000원

우대혜택

할 인 : 경기도민 50% (미취학 아동 제외)
무 료 : 65세 이상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아(48개월 미만), 인솔교사 1인

경기도미술관

경기도안산시단원구 초지동 667-1
4호선 초지역/화랑유원지안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36 Dongsan-gil, Danwon-gu, Ansan-si
Gyeonggi-do 425-866, Korea

T. +82 (0)31-481-7000

F. +82 (0)31-481-7053